

‘선행 연구 기술’의 주요 기능에 대한 연구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지도를 목적으로-

이 윤 진

Abstract

Yunjin Lee. 2014. 2. 28. **The Study on the Primary Function of ‘Previous Research Use’: Objective of Education KAP Writing.** *Bilingual Research* 54, 239-272.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find the primary function of ‘previous research use’ within Korean academic texts, to utilize as the fundamental reference material for guiding academic-purpose writing. Academic writing is a writing with a broadened definition of ‘source use’ as a prerequisite. Moreover, ‘previous research’ is the source applied by the writer of the academic text from the onset to the end-point to construct a more abundant and solid argument. Although interest toward the education of academic writing for international students undergoing the master’s and doctorate program has increased, the discussion of a constructive guidance concerning the ‘previous research use’ remains inadequate. This study confirmed the necessity to first review concepts and values of previous data and concentrate on the non-fixed characteristic of previous research placement within an academic text through existing research outcomes. Furthermore, the contemplation of the primary function of previous research use became imperative alike the importance of considering the technical strategies involved in the academic writing process. The examined six primary functions of previous research use within this study were ‘identification of primary(key) results’, ‘problem proposal and emphasis on the necessity of research’, ‘categorization of results and comprehension of direction’, ‘the re-application of methodology and subjectivity’, ‘the review(examination) of principal concepts perspective analysis’, and ‘the evidence provision and result analysis’. Since this study examines each function with its basis on actual examples of academic texts, the enclosed data will be able to usefully applied during the guidance of academic writing. Results from previous research is inarguably an important data to permit the academic text to

be more academic. However, it is not advisable to rely entirely on previous research and the writer of scholarly text should be aware of how to apply strategically and effectively, the previous research to one's writing, in accordance with one's research objective and characteristic. This implies research, seeking a more constructive content and strategies on 'previous research use' in regards to the academic writing guidance, must also be pursued.(Yonsei University)

【Key words】 선행 연구(Previous Research), 자료 사용(Source use), 학술텍스트(Academic texts), 선행 연구 기술의 주요 기능(Function of Previous Research Use),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지도(Education of KAP writing: Korean for Academic Purposes)

1. 서론

선행 연구는 학술텍스트¹⁾의 필자가 ‘무엇’에 대해, ‘왜’,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결정할 때 기댈 수 있는 원천이다. 따라서 양적·질적으로 풍부하고 폭넓은 선행 연구를 검토할수록 필자는 자신의 글에 더욱 탄탄한 근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렇지만 학문 목적 쓰기의 필자가 자신의 연구 주제에 관련하여 해당 학문 분야에서 잘 알려진 이론에서부터 가장 최근의 자료를 빠짐없이 찾아 읽고,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수많은 내용을 파악한다는 것이 결코 간단한 일은 아니다. 연구 동향이나 쟁점을 종합적으로 훑으면서 그 중에서 요약할 부분, 핵심적인 내용이 담긴 기존 성과의 일부를 그대로 빌려올 부분, 기존의 연구 결과에 자신의 관점을 덧붙여 옮겨야 할 부분 등이 어디이며 그것을 자신의 글에 반영할 때 어떤 전략이 효율적인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선행 연구의 기술은 특정 시점에 국한되지 않고 학술텍스

1) 학문 목적 쓰기 영역에서 다루게 되는 보고서, 소논문, 학위논문 등의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학술텍스트’라는 용어를 택하였다.

트의 구상 단계에서부터 작성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단계를 망라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실제로 자신의 글에 반영된 선행 연구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학문 목적 쓰기의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충분한 시간과 품을 들여야 하는 것이 바로 선행 연구의 기술 부분²⁾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보면,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글에서 선행 연구 기술의 미숙함이 빈번하게 발견되는 까닭이 한국어 능력만의 문제가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최근 국내 대학의 유학생의 급증으로 인해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 연구도 최근 그 지평이 다각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석박사 과정의 유학생이 늘어나면서 학위논문(김현진, 2011; 정다운, 2011; 심호연, 2012 등)과 소논문(박나리, 2012; 안소진, 2012, 이준호, 2012 등) 쓰기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³⁾ 그러나 김현진(2011:48)의 지적처럼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한국어로 소논문도 써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논문은 물론 연구계획서 작성에도 미숙할 뿐만 아니라 학위논문의 작성 방법에 대한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자료도 충분하지 않다. 특히 학문 목적 쓰기의 모든 유형을 망라하여 ‘선행 연구 기술’이 필수적이고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에 대한 면밀한 고찰이 부족했다.

이에 이 글은 학문 목적 쓰기 지도를 위한 실질적인 내용과 방안의 모색이 절실하다는 입장에서, ‘선행 연구 기술’의 기능을 실제 용례를 중심

2) 학술텍스트에서 선행 연구가 반영된 모든 부분을 의미하며 학술텍스트의 특정 부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 둔다. 본고에서의 선행 연구 기술의 구체적인 개념은 2장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3) 실제 쓰기 단계에서 실제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유의미한 성과들도 발견되는데 그 예로 학술텍스트의 표지를 연구 대상으로 삼은 박지순(2006), 이정민·강현화(2007)과 헤지 표현을 고찰한 이준호(2012)의 논의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자료를 기반으로 해야 하는 모든 쓰기에 있어서 글쓰기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윤진(2012)과 학술텍스트의 문형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안소진(2012), 학술텍스트의 하위텍스트로서 각주에 초점을 둔 박나리(2013)의 논의가 있다.

으로 살펴봄으로써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지도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선행 연구 기술’의 의미를 검토하고 3장에서는 선행 연구 기술의 주요 기능을 밝히도록 하겠다.

2. 연구의 배경

본 장에서는 본격적인 논의 전개에 앞서 먼저 학술텍스트에서의 ‘선행 연구’의 개념 및 가치를 확인하고⁴⁾ ‘선행 연구 기술 위치의 비고정성’, ‘선행 연구 기술 전략의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이 글의 이론적 배경으로 삼는다.

2.1. ‘선행 연구’의 개념

‘선행 연구’는 학술텍스트의 시작점이자 도달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으로(김성숙:2013)⁵⁾, 앞서 이루어진 연구 성과를 통칭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선행 연구’ 이외에도 ‘앞선 연구’, ‘기존 논의’, ‘기존 성과’ 등으로도 다양하게 불린다.⁶⁾ 그런데 실제로는 ‘선행 연구’의 개념이 다

-
- 4)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 가운데 ‘선행 연구란 무엇이며 꼭 참고해야 하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한 편의 글을 쓰기 위해서 몇 편의 선행 연구 자료를 참고해야 하는가’, ‘글 전체에서 자료가 반영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합한가’ 등이 있다. 이에 대한 단서는 선행 연구의 개념 및 가치를 살펴봄으로써 모색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격적인 선행 연구 기술의 기능 고찰에 앞서 선행 연구의 개념이 정리될 필요가 있겠다.
 - 5) 선행 연구의 가치 및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최근의 논의 가운데 김성숙(2013:76)은 “학술적 글쓰기는 선행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데서 출발하므로 글을 쓰는 과정에서 기존 자료에 대한 분석 절차를 빼놓을 수 없다.”고 하였다.
 - 6) 참고로 영어에서도 선행 연구를 지칭하는 표현이 다양한데 ‘The present study, background, previous literature, previous research, previous work, previous study,

소 추상적인 측면이 있어서 지칭 범위가 상이하다고 판단된다. 이를테면 넓은 의미의 선행 연구란 기존 연구자에 의해 수행된 연구 성과 및 자료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텍스트 자료 이외에도 연구를 위해 수집한 자료, 기존 연구자가 제시한 그림 자료, 표 자료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일컫는다. 반면 좁은 범위의 선행 연구란 기존 논의의 관점이 드러난 텍스트로 된 자료를 가리키는 것이 될 수도 있다.⁷⁾

본고는 학술텍스트가 넓은 의미의 자료 사용을 전제로 하는 글인 만큼 ‘선행 연구’는 곧 ‘자료’라 보는 입장이다. 다만, 이 글의 목적이 학문 목적 쓰기 지도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는 데 있으므로 선행 연구 기술의 기능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구체적인 자료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글은 필자가 자신의 글에 어떤 형태로든 출처를 남겨 내용을 빌려온 부분을 중심으로 하여 텍스트 자료로 된 선행 연구를 주된 분석 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여기에는 선행 연구의 일부분을 필자의 의견을 보태지 않고 가져온 경우, 필자의 의견을 덧붙여 빌려온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특히 실제 학술텍스트에 반영된 선행 연구 기술의 용례를 제시함으로써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에게 있어서 ‘선행 연구’가 단순히 ‘앞서 이루어진 연구’라는 추상적인 개념에 머무르지 않고, 필자 자신의 연구 내용과 연관성이 깊은 앞선 연구들 중에서도 논의 전개에 발판이 될 수 있는 탄탄한 이론, 방법론, 근거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literature review, discussing literature’ 등이 있다.

7) 뿐만 아니라 ‘선행 연구’는 ‘자료’ 자체가 아닌 학술텍스트의 체제에서 특정 부분을 일컫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2.2에서 다루기로 한다.

2.2. 선행 연구 기술 위치의 비교정성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가 선행 연구의 개념과 가치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학술텍스트의 구성 체제에 있어서 선행 연구가 반영되어야 할 부분은 어디이며 그것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와 판단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능숙한 선행 연구 기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본고의 관심은 선행 연구가 학술텍스트에 활용되어 나타나는 위치가 아니라, 학술텍스트의 어디에도 선행 연구가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선행 연구가 '선행 연구 검토', '이론적 배경', '기존 논의 고찰', '연구의 배경'과 같은 명칭으로서 별도의 장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칫 선행 연구가 학술텍스트의 한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내용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논의의 전개 및 기술에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는 학술텍스트의 어느 부분에 선행 연구가 기술되어도 자연스럽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서론, 결론, 초록 부분만을 별도로 논의한 기존의 성과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신명선(2006:153)은 연구 성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해당 주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만 하는 부분이 '서론'임을 강조한 바 있는데, 이것은 선행 연구의 기술이 '서론'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선행 연구가 학술텍스트의 '결론' 부분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는 근거로 Bitchener(2010) 등이 있다. Bitchener(2010)에서 제시한 결론⁸⁾의 모형에서 '선행 연구'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핵심 선행 연구의 재

8) 학위논문 결론 부분의 장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Bitchener(2010)의 모형을 바탕으로 삼은 이주희(2012)를 참고할 수 있다.

진술’, ‘자신의 연구 결과와 선행연구 결과와의 비교’가 그것이다.)⁹⁾ 세 번째로, 선행 연구는 학술텍스트의 서론, 결론뿐만 아니라 초록과도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 초록이 연구의 목적과 배경, 연구의 결과 및 시사점 등을 압축하여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고 한 Swales(1990)의 설명처럼 초록이 학술텍스트 전반의 과정과 결과를 보여주는 축소판인 만큼 선행 연구의 기술이 자연스럽게 적용된다.¹⁰⁾ 이상으로 언급한 서론, 결론, 초록 이외에도 선행 연구는 학술텍스트의 특정 체제에 국한되지 않고 기술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 기술 위치의 비교정성은, 학술텍스트의 특정 부분만을 부분적으로 논의하기보다는 ‘선행 연구 기술의 기능’ 자체에 주안점을 두어 학술텍스트 전체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3. 선행 연구 기술 전략의 중요성

학술텍스트에서의 선행 연구의 기술은 그것을 단순히 이해하는 것만으로 이와 관련한 쓰기 전략과 능력을 갖출 수 없다. 지금까지 학술텍스트의 구성 체제별 논의가 2010년도 이후에 눈에 띄게 활발해져 서론(신영주, 2011; 전경선, 2012; 박나리, 2012)은 물론 연구 방법(윤여옥,

9) 연구 성과에 대한 요약 및 학문적 의의뿐만 아니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 및 한계점 등을 압축하여 제시하는 부분인 ‘결론’이 효과적으로 기술되기 위하여 선행 연구가 활용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10) 학위 논문의 초록 부분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삼은 최근의 논의인 조은영(2012)에서는 초록이 서론(Introduction), 연구 방법(Method), 결과(Result), 논의(Discussion)의 논문 구조 각각을 1~2문장씩 구성하는 이동마디 구조(move structure)를 가진다고 본 Swales(1990)의 논의를 언급하면서, 초록의 장르적 지식을 활용하면 논문 전체의 내용을 좀 더 빠르고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학술텍스트에서 초록이라는 장르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선행 연구의 기술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12), 결과 및 논의(이수연, 2012; 심호연, 2013), 결론(이주희, 2012), 국문 초록(박보연, 2011; 조은영, 2012)을 중점적으로 다룬 성과가 있었지만 선행 연구를 활용한 쓰기 전략과 능력에 대한 논의는 불충분했다. 또한 학문 목적 쓰기에 있어서 선행 연구 기술에 대한 학습 및 지도 전략 모색의 필요성도 제기되었지만(김현진:2011)¹¹⁾ 그 성과는 아직 미흡하다.

한편 일반적인 한국어 능력을 기준으로 보면 고급 수준에 해당하는 한국어 학습자라 하더라도, 학문 목적의 쓰기의 과정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경향들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필자의 글과 연관성과 긴밀성이 떨어지는 단지 몇 편의 선행 연구에 기대어 내용을 기계적으로 옮겨오는 일, 글의 대부분이 선행 연구로 채워지고 필자의 관점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일, 여러 선행 연구에서 가져온 내용들이 유기성 없이 단순히 나열되는 일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최은지, 2009; 이인영, 2011; 이윤진, 2012). 이것은 단지 한국어 능력만의 문제가 아니며 학문 목적 쓰기에 있어서 선행 연구 기술의 전략 및 능력의 부재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하여 학문 목적 쓰기에서 선행 연구 기술의 전략이 특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까닭을 다음과 같이 종합해 볼 수 있겠다.

먼저 언어의 기능의 관점에서 보면, 선행 연구 기술은 ‘읽기’와 ‘쓰기’가 통합된 과정이다.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자료를 구분하고 선별하면서 읽어야 하는 것은 물론 적절한 자료를 선별한 후에도 읽기는 계속되어야 한다. 또한 읽는 과정에서도 필자는 쓰기를 통해 자신에게 유용한 내용을 분석하고 정리하고, 실제 학술텍스트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도 읽기와 쓰기는 순환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성이 있다.

11) 김현진(2011)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대상의 쓰기 교육에서의 대표적인 연구들(김정숙(2000), 이해영(2004), 송지현(2005), 홍정현(2005)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학위논문 지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었지만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 논문 구성 체제, 논문 기술 방식, 선행연구의 고찰 방법 등과 같은 내용이 지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로 선행 연구의 기술의 전략에서 다루어야 할 것 가운데 ‘인용’ 및 ‘요약하기(김호정·정다운 외:2011)’¹²⁾를 빼놓을 수 없다. 이 때 선행 연구의 내용을 그대로 옮길 것인지 필자의 의견을 보탬 것인지에 대한 내용적 판단은 물론,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바른 출처 표시를 위해 지켜야 할 규범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즉, 선행 연구 기술에 있어서 선행 연구의 자료를 활용할 때는 내용과 형식의 측면을 고려한 효율적인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학문 목적 쓰기에서 선행 연구 기술의 전략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세 번째는 이유는, 선행 연구의 기술이 글쓰기 윤리의 준수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데에 있다. 실제로는 선행 연구 기술은 모든 쓰기 단계와 맞물려 있다. 이를테면 옳은 방법을 통해 선행 연구의 자료를 검색하는 일, 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선별하는 일, 자신만의 참신한 글의 핵심 아이디어를 결정하는 일 또는 참고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밝히는 일 등 필자가 글을 쓰는 모든 과정과 내용마다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 기여를 인정함에 있어서 글쓰기 윤리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¹³⁾ 글을 쓰기 위해 ‘어떤 자료를 어떻게 이용하는가’가 곧 글쓰기 윤리의 준수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글쓰기 윤리 교육이 자료 사용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윤진(2013)의 주장은 선행 연구 기술 전략에 있어서 글쓰기 윤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이상으로 본 장에서는 학문 목적 쓰기에서의 선행 연구의 개념과 가치

12) 김호정·정다운 외(2011:158)에서는 선행 연구 기술에 있어서 ‘요약하기’ 기능을 강조하면서 “논문을 쓸 때에는 주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정리하여 그 한계를 지적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문헌의 핵심 내용을 활용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논문 쓰기에서 요약은 꼭 필요한 활동이다.”고 하였다.

13) 아무리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필자 의견과 참고한 자료의 내용 구분이 잘 되었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글의 내용이 선행 연구의 자료에 기댄 것이라면 글쓰기 윤리를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양적·주종 관계의 위반에 대해 설명한 이인재(2010:281)를 참고할 수 있다.

를 확인하였고 학술텍스트의 구성 체제에서 선행 연구가 기술되는 위치의 비고정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알았다. 또한 학문 목적 쓰기 학습 및 지도에 있어서 선행 연구 기술의 전략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만큼 이를 위해 선행 연구 기술의 기능을 고찰할 필요성이 제기됨을 확인하면서¹⁴⁾ 본고의 이론적 배경을 소개하였다.

이 글에서는 한국학술지 인용색인(KCI)의 정보를 참고하여 인문학 분야의 주요 학술논문¹⁵⁾을 중심으로 살펴되, 본고의 논의를 위해 참고한 자료도 포함하여 총 70여 편의 학술텍스트를 검토하였다. 이 가운데 본고의 목적이 선행 연구 기술의 기능을 전반적으로 살피는 데 있는 만큼 각각의 기능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으로 판단되는 용례를 선정하여 제시하기로 한다.¹⁶⁾

3. 선행 연구 기술의 주요 기능

본 장에서는 선행 연구 기술의 주요 기능을 크게 ‘주요 성과 확인’, ‘문제 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부각’, ‘기존 성과의 범주화 및 동향 파악’, ‘연구 대상 및 방법론의 적용’, ‘주요 개념 검토 및 관점 분석’, ‘논거 제시 및 현상 해석’의 여섯 가지를 보고 이에 대해 논의한다.¹⁷⁾ 학술텍스트

14) 기존의 자료를 해당 공동체의 규범에 맞게 적절히 빌려올 수 있어야 하므로 잠재적 ‘표절’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실제로는 주제가 결정되기 이전이나 이후의 시점에서, 수많은 자료를 검색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선행 연구의 검토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5) 인문학 분야에서 피인용 지수가 상위권(2013년 상반기 기준)인 학술논문 가운데 텍스트파일로 변환이 가능한 논문 50여 편을 선별하였다.

16) 선행 연구 기술의 기능은 물론 예문 내용의 유의미성도 고려하여 선별한다. 즉 본고의 성과가 학문 목적 쓰기 분야에서 활용될 것임을 감안하여 ‘학문 목적 쓰기’ 분야의 용례를 가장 먼저 선정하고 ‘한국어 교육’, ‘국어학’ 분야로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최종적으로 선별된 용례의 출처 목록은 <부록>에 제시하기로 한다.

17) 여기에서 여섯 가지 기능은 용례의 출현 빈도에만 의존하여 도출한 결과가

트의 용례를 토대로 선행 연구 기술의 기능의 특징을 고찰함으로써 학문 목적 쓰기 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3.1. 주요 성과 확인

선행 연구 고찰의 가장 대표적이면서 자주 사용되는 기능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주요 성과의 확인’이다. 이를 통해서 해당 연구 주제의 가치를 드러내고 지금까지 해당 분야에서 양적, 질적 성과가 얼마나 축적되었는지를 밝히게 된다.

주요 성과 확인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 그 하나는 다수의 기존 논의를 아울러 언급하면서 해당 분야에서 필자가 쓰고자 하는 연구 주제의 가치를 노출시키는 것이고(1가-다), 두 번째는 특정 논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그것의 학문적 기여도 및 파급력을 강조하는 것이다(2가-다).

(1) 가. 어휘의미 전반을 다룬 연구는 단행본으로 최길시(1998)와 학위 논문으로 이정희(1997), 이연경(1999), 한정일(1999)이 있고, 그 밖에 조현용(1999, 2000)과 문금현(2000)이 있다.

나. 영어 교육과 달리 한국어 교육에서는 학위논문 작성 교수요목, 교육 내용에 대한 연구는 찾을 수 없었으나 에 대한 연구는 찾

아니라 기능 자체의 중요성도 감안하여 제시한 것이다. 가령, 3.5에서 다루는 ‘주요 용어의 개념 정의’와 같은 기능은, 그 출현 빈도는 다른 기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선행 연구 기술의 기능으로서는 빼놓을 수 없다고 보았다. 한편 각 기능별 최종 용례 선정에 이르기까지 본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순환적으로 거쳤다. ①분석 대상으로 삼은 텍스트에서 선행 연구가 반영된 용례를 1차 추출한다. ②각 용례별로 기능을 분석하면서 분류 작업을 한다. ③앞서 분류한 결과를 토대로 선행 연구 기술의 주요 기능으로 범주화한다. ④선행 연구 기술의 기능별로 가장 적절한 용례를 2차 추출하고 최종적으로 선별한다.

을 수 없었으나 학문 목적 한국어의 쓰기 교과과정 설계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대표적인 연구로 김정숙(2000), 이해영(2004), 송지현(2005), 홍정현(2005) 등이 있다.

다. 또 최근 들어서는 중간언어에 대한 관심이 활발해져 전반적인 개념과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김정은, 2003)나, 중간언어 어휘론(안경화, 2003)등과 같이 구체화된 연구가 등장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1)은 연구 주제가 해당 학문 분야에서 얼마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인지, 세부 영역에서 어떤 연구가 있었는지 개관하면서 필자의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필자가 짐작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제공하는 기능도 함께 지닌다. 반면 (2)의 경우는 해당 분야에서 특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필자가 판단하는 논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그것의 학문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예이다.

(2) 가. 최용재(1974)의 논문이 최초의 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의 박사학위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조항록(1998, 2000, 2001)은 초급, 고급 학습자들을 위한 문화교육 방안 등을 꾸준히 발표하였다.

다. 최정순(2002)에서 소개하는 영어권 청소년 교포들을 위한 한국어학습 웹 사이트는 매우 흥미있고 바람직해 보인다.

위와 같이 선행 연구 기술에는 해당 분야에서의 최초의 논의(2가)를 밝히거나 특정 주제에 대한 지속적인 학문적 성과(2나), 연구 내용과 관련된 성과물의 가치(2다) 등을 강조하는 기능도 나타난다.

3.2. 문제 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부각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선행 연구 기술의 첫 번째 기능이 ‘주요 성과의 확인’이라면, 이것은 필자가 본격적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며 어떤 문제 제기를 위한 단초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학문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했거나 성과가 미흡했던 부분을 발견하여 필자만의 문제 제기를 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것도 선행 연구 기술의 주요 기능이다.

문제 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부각의 기능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용례를 살펴보면, 앞선 연구에서 근거를 찾아 빌려오는 방법(3가-나)을 비롯하여 양적·질적 측면에서 성과가 불충분했음을 표현하는 방법(4가-나)이 발견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연구의 필요성을 암시적으로 드러내거나 명확하고 제시하는 경우(5가-나)도 찾을 수 있다.

(3) 가. 문제는 중도 탈락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이해영, 2001:282).

나. 교육인적자원부(2002:50)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01년까지 거의 10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한다.

다. 최근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숫자를 2020년에는 20만 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국일보, 2012년 04월 39일자)

(3가-다)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선행 연구 및 공신력 있는 자료에서 필요한 내용의 일부를 가져온 것인 데에 반해, (4가-나)는 필자가 자신의 연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먼저 기존 성과의 불충분함을 지적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특히 (4나)와 같은 용례에서는 ‘일부, 소수, 부분적으로, ~뿐이다, ~에 불과하다, ~찾을 수 없다’와 같은 표현(밑줄)이 자주 쓰인다.

(4) 가. 특히 어휘 교육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로는 김지영(2004), 이유경(2005)의 두 편 정도를 들 수 있을 뿐이다.

나. 상하의어 교육에 대해서는 아직 집중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고, 전반적인 어휘 교육을 다룬 조현용(1999: 274-275)과 한정일(1999:17-23)에서 일부 다루고 있다.

(4)는 단순히 기존 연구를 평가절하하여 맹목적인 비판을 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을 둔 것 아니라, 해당 분야에서 필자가 논의를 전개하여 학문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내용과 직결된 문제 제기를 중심으로 기술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어 학습자에게 문제 제기의 예를 보여 줄 수 있는 선행 연구 기술의 사례를 풍부하게 노출시키는 것도 좋지만 맥락에 대한 이해를 간과한다면 결국 선행 연구의 기계적인 기술을 익히는 데에 머물게 될 것이다.

따라서 (5가)¹⁸⁾와 같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선행 연구의 어떠한 부분이 미흡했는지¹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점을 참고할 수 있는지를 밝히면서 자연스럽게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드러내는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학문 목적 쓰기에 매우 유용하다.

(5) 가. [문제 제기] 국어 학술텍스트에 사용된 헤지 표현에 대한 선행 연구를 찾기는 어려웠다. [선행 연구의 불충분함] 관련 연구로 Shim(2005) 정도를 찾을 수 있었는데, 그나마 이 연구는 학술텍스트의 헤지 표현의 특징을 밝히는 과정에서 한국어 학술텍스트의 헤지 표현에 대해 간단히 다루었을 뿐이다. [선행 연구의 부분적

18) 이하, 예문 사이의 각괄호 속 내용은 연구자가 삽입한 것이다.

19) 문제 제기에 있어서 초점을 두는 내용과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가령, 양적인 연구 성과는 풍부했지만 세부 영역의 폭이 확대되지 못했다거나 새로운 시각이나 방법론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제기되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성과는 잘 알려진 방법론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 등을 할 수 있다.

의의 그런데 이 연구는 한국어 학술텍스트에 드러난 헤지 표현에 대해 주목할 만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선행 연구에서 참고할 내용 인용 Shim(2005:206)에 의하면, 한국어 학술텍스트의 연구자들은 헤지를 잘 사용하지 않고 단호한(assertive) 형식의 ‘있다’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한다. 한국어 학술텍스트에서 헤지를 유발하는 주요 요소로는 수동태와 간접 인용을 제시하였다(예: ~라고 한다).

(5가)의 용례가 첫 문장에서부터 문제 제기를 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라면, (5나)는 선행 연구의 성과를 먼저 언급하면서 학계에 대한 관심을 확인한 후에 기존 연구에서 논의가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는 단계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5) 나. 선행 연구 제시 Lakoff(1973) 이후 Leech(1983), Brown & Levinson(1987) 등 공손이론이 한국어에 적용되면서 한국어에서 공손의 보편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연구 성과 확인 이로써 문법 현상으로서 공손의 문제를 다루던 기존의 공손논의들과 다른, 화용론적 특성으로서 공손을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문제 제기 그러나 공손현상에 대한 설명이 다각도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연구의 필요성 부각 한국어의 특성에 따른 공손현상의 독특성이 밝혀질 만큼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살핀 바와 같이 선행 연구 기술의 주요 기능의 하나로서 ‘문제 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부각’이 중요한 까닭은 필자가 어떤 연구를 어떤 목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가를 독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함으로써 연구의 방향성과 방법 등을 결정하는 지표로서의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연구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다.

3.3. 기존 성과의 범주화 및 동향 파악

본 절에서는 선행 연구 기술의 세 번째 기능으로 ‘기존 성과의 범주화 및 동향 파악’에 대해 살펴본다.

엄밀히 말하면 앞서 살핀 ‘주요 성과 확인’, ‘문제 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부각’의 두 기능은 ‘기존 성과의 범주화 및 동향 파악’의 상당 부분 겹쳐 있다. 다만 ‘주요 성과 확인’ 기능이 연구 내용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에, ‘문제 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부각’이 연구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살핀 것인 반면, 본 절에서 살핀 ‘기존 성과의 범주화 및 동향 파악’의 기능은 선행 연구의 내용을 범주화함으로써 해당 분야를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삼는다는 측면에서 특징이 있다.

(6) 가. 이러한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들은 학문 목적의 한국어 교육과정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설계 방안을 연구한 김정숙(2000), 이해영(2004), 박선옥(2009) 등과 학문 목적 학습자에게 적절한 교수법을 반영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교육 과정과 수업 내용을 연구한 이정희·김지영(2003), 강현화·박동규(2004), 유석훈(2005), 이준호(2007), 김유미·박동호(2009) 등이 있다.

나. 학습자의 언어 학습 전략(강승혜(1996, 1999), 이미영(2001)), 학습자의 인지 양식(김미옥(1998), 윤연진(2001)), 한국어 학습자들의 의사소통전략 유형(진제희(2000)), 한국어 학습자의 성격유형 및 정의적 요인(강영아(2001), 이용숙(2001)), 학습자의 요구 분석(권미정(2001)) 등 다양한 학습자 요인을 다룬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위의 (6가-나)는 해당 학문 분야에서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어떤 논의

가 이루어져 왔는지를 개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앞서 살핀 ‘주요 성과 확인’, ‘문제 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부각’의 기능에서는 크게 드러나지 않았던 해당 학문 분야에서의 필자의 통찰력을 가늠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존 성과의 범주화 및 동향 파악’ 기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기존 성과의 범주화 및 연구 동향 분석을 위해서는 필자가 자신의 연구 특성에 맞게 선행 연구를 시대별로 살필지, 특징별, 주제별, 영역별, 관점별, 연구 방법론별, 연구 대상별 등으로 범주화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 예로 (7)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7가)는 두 편의 논의를 비교함으로써 해당 학문 분야에서 연구 주제를 분류할 때의 연구자의 입장 차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예이다.

(7) 가. 최은규(2009)에서는 학문 목적의 연구 주제를 ‘교육과정 및 교수요목 설계’, ‘교재 개발’, ‘기능교육’, ‘요구분석’, ‘언어 사용역 분석’, ‘담화 분석’, ‘평가’ 다섯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김유미·박동호(2009)에서는 전문 분야에 사용되는 어휘나 텍스트를 분석한 ‘자료 분석 연구’와 구체적인 교수-학습 내용 및 방법에 대한 ‘교수-학습 방법 및 교재 연구’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와 실제 교육 현장을 보고한 ‘교육과정 보고 연구’로 분류하고 있다.

나. 학술 텍스트 분석 연구의 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어교육 석박사 과정의 보고서(김영규·이은하, 2008), 상경대 학생의 보고서(이원규, 2005), 국어학 학술논문(박지순, 2006), 한국어교육 학위논문(박은선, 2005; 신영주, 2011; 윤여옥, 2012), 인문/사회/자연계열 학술논문(이준호, 2012), 한국어교육/국어학/경영학/전자공학 논문(홍혜란, 2011), 인문사회계열 전공서적(강현자, 2009), 인문/사범/경영대학 시험지(신필여, 2008) 등이다. 그 다음으로는 정보 전달의 설명문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한편 (7나)²⁰)는 기존 연구에서 삼은 분석 자료가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분류한 예이다. 그런데 이처럼 기존 연구를 범주화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필자가 자신의 연구 주제 및 내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선행 연구를 범주화하고 연구 동향을 분석할 때는 고도의 쓰기 전략이 필요하다. 예컨대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기술과 더불어 구체적이며 미시적인 기술도 균형 있게 병행되어야 한다. 다음과 같이 특정 선행 연구에서 참고하고 싶은 내용의 일부를 가져오는 경우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8) 김은주(2001)는 ‘한국어교육의 학문적 위상 정립과 학문으로의 미래 조망’이라는 주제로 한국어교육의 제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면서 학문으로서의 한국어교육에 대한 연구 주제의 세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김은주, 2001:55)고 지적하고 있다.

선행 연구 기술에 있어서 ‘기존 성과의 범주화 및 동향 분석’은 고도의 전략과 품이 드는 작업이다. 수많은 선행 연구를 읽었다고 해서 그것을 자신의 글에 장황하게 옮겨와서는 안 되며, 필요한 부분을 적절한 방법으로 범주화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통찰력 있게 앞선 연구를 분석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상에서 살핀 용례들이 잘 보여주고 있다.

3.4. 연구 대상 및 방법론의 적용

본 절에서는 선행 연구 기술의 네 번째 기능으로 연구 대상 및 방법론

20) “한국어 쓰기 교육을 위한 텍스트 분석 연구의 방향과 과제”라는 제목의 연구에서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 특성에 맞게 분석 자료에 따라 앞선 논의를 분류한 사례이다. 이를 통해, 연구의 목적이 다르다면 동일한 자료라 하더라도 선행 연구 분류 시 차별화된 기준을 적용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의 적용을 논의한다. 학문적 글쓰기의 필자는 자신의 연구 주제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선행 연구를 기대거나 참고한다. 즉 선행 연구에서 어떤 대상을 얼마나 살폈는지, 어떤 방법론을 적용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자신의 연구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더불어 선행 연구와의 차별점과 공통점을 언급하는 기능도 여기에 포함된다.

연구 대상 및 방법론 적용의 기능은 크게 선행 연구의 사례를 언급하는 경우(9가-나)와 자신의 연구 대상 및 방법론을 선행 연구와 비교하며 언급하는 경우(10가-나)로 구분된다.

- (9) 가. 송영빈(2000:25)에서는 물리학 용어를 대상으로 한국어, 일본어, 영어의 전문 용어와 기본 어휘의 상이도를 비교하였다.
- 나. Jordan(1997)을 기본으로 참조하되, 부족한 부분을 상세화하고 삭제하는 등 변형하였다.

필자의 연구 대상 및 방법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기는 하지만 (9)는 앞선 연구에 대한 언급만으로 한 문장을 이루고 있고 (10)은 필자의 연구와의 차별점까지 함께 언급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 (10) 가. 텍스트 유형 분류는 김중섭(2011), 이미혜(2011)를 참조하되, 연구자들의 분류 방식이 상이한 경우에는 연구물에 제시된 유형을 그대로 밝히고자 한다.
- 나.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학생의 학술적 쓰기 수행 능력을 진단할 과제를 개발하기 위하여, 크롤과 레이드(1994)가 제안한, 2개 유도 작문 형태를 수용하였다. 즉, 학술 과제 맥락을 반영하여 학부 1학년 교양 강의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액자’ 지시문 방식을 채택하였다.

선행 연구 기술의 기능 가운데 연구 대상 및 방법론의 적용에 있어서 유의할 점은, 필자가 자신의 연구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 연구를 토대로 볼 때 ‘어떠한 이유로 무엇을 어떻게’ 연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과정을 드러내야 한다.

실제로 학술적 글쓰기에서 논리적으로 자신의 연구 대상 및 방법을 확립하는 과정을 보이는 것이 간단하지 않은데 이는 (11가-나)와 같이 문장 이상의 단위를 함께 분석해 봄으로써 알 수 있다.

- (11) 가. [선행 연구 제시]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담화표지를 분석한 연구로는 김태연(2007), 오선경(2006), 정선훈(2005), 이희정(2003), 진제희(2003) 등을 들 수 있겠다. [차별점 확인] 그러나 이들 모두는 구어 담화를 분석한 것으로서 대화나 듣기 지문에 사용된 특정한 담화표지를 분석하여 이를 대화 이해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 제시] 문어 담화를 분석한 연구는 김은희(2007), 이효인(2005), 박은선(2005) 등의 [차별점 확인] 구조 및 결속성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필자의 논의가 기존에 연구된 바가 없는 것임을 확인] 특정 담화 표지의 목록을 쓰기 교육에 활용한 연구는 찾아 볼 수가 없었다. [다른 학문 분야의 몇몇 연구가 있음을 언급] 다만 영어교육 분야에서 몇 개의 연구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 지은주(2003)의 논의가 본고와 유사한 연구방법을 취하고 있었다.

(11가)는 필자가 독자로 하여금 자신이 설정한 연구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몇 단계에 걸쳐 선행 연구를 활용하고 있는 예이다. 먼저 필자의 연구와 관련 있는 두 차례에 걸쳐 대표적인 선행 연구를 제시하고 자신의 연구와의 차별점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필자의 연구

가 가치 있는 것임을 설득력 있게 보여 준다. 그리고 필자가 하고자 하는 연구가 기존에 수행된 적이 없음을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기존에 유사한 연구 방법론을 적용한 적이 있는 연구 가운데 인접 학문 분야의 사례가 있음을 밝힘으로써 해당 분야에서는 아직 시도된 적이 없지만 필자의 연구가 가치 있는 것임을 강조한다.

다음으로 (11나)는 다수의 주요 선행 연구의 대상 및 방법을 1편씩 언급하면서 종합적으로 살피는 과정을 통해 필자의 연구가 어떤 점에서 차별점을 지니는지를 기술했다는 점에서 (11가)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선행 연구를 기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1) 나. [다수의 주요 선행 연구를 1편씩 검토] 먼저, 원만희는 학술적 글쓰기에 있어서 비판적 사고력을 기반으로 한 단계별 과정을 제시하였다. 원진숙은 학술적 글쓰기 능력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대학 작문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석주연은 학술적 글쓰기에 대한 관점과 인식을 살펴보고, 세분화된 평가 방식을 제시하였다. ... (중략) ... [선행 연구의 대상 및 방법론의 경향 파악] 소논문 작성과 관련된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系列別 글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특정 계열 학생들의 주제 선정시 선호도와 특징 등을 고찰한 바 있다. [차별화된 연구 대상 및 방법론의 적용] 하지만, 본고에서는 ‘과정 중심 워크숍 활동을 통한 학술적 글쓰기 지도 모형’을 적용하여 소논문의 실제 지도 사례를 제시한 점이 차별적이다.
(최윤정, 407-408)

3.5. 주요 개념 및 관점 분석

본 절에서는 선행 연구 기술의 기능의 다섯 번째로 ‘주요 개념 및 관점 분석’에 대해 논의한다.

선행 연구 기술에서 주요 개념 검토 및 관점 분석을 주요 기능으로 다루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학술적 글쓰기에 있어서 주요 개념 및 용어는 해당 연구의 방향과 필자의 관점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인 만큼 매우 신중하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있다. 두 번째로, 일상생활에서 쓰여 우리에게 친숙한 용어라도 학술적으로는 특수한 의미를 지니기도 하며, 때로는 해당 학문 분야에서 정착되지 않은 낯선 용어인 경우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주요 개념의 검토는 중요하다. 세 번째는, 주요 개념 및 관점에 대해 선행 연구마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필자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자 하는지를 밝히게 된다.

주요 개념 검토 및 관점 분석의 기능 해당하는 예를 살펴보면, 먼저 (12가)는 자신의 논의에서 핵심이 되는 용어의 정의를 정립하기 위한 과정에서 앞선 논의에서 개념을 가져온 것이다.

- (12) 가. <그림 8>에 따르면, Langacker 교수는 인지를 바탕으로 언어와 문화의 상호관련성을 파악하고 있다. 언어와 문화가 겹친 현상은 언어문화라 할 수 있는데, 언어인류학자 Agar(1994)에서는 언어문화(languaculture)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 (12나)는 기존에 사용된 용어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갖는 새로운 용어가 있음을 선행 연구를 통해 언급함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 (12) 나. 그런데 후에 종족적인 차원에서의 차이에 기초하여 명명된 ‘교차문화(cross-cultural)’란 용어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며, 따라서 광의의 문화적인 차이를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으로서 ‘다문화주의’라는 용어가 생기게 되었다(Speight,

Myers, Cox & Highlen, 1991). 다음 <표 1>은 다문화 교육의 발전과 특성의 윤곽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다음의 (13가-다)은 필자마다의 견해²¹⁾ 차이를 보일 수 있거나 보이고 있는 용어를 언급한 사례이다.

(13) 가. 기존 한국어 교재의 문법 설명에서 용어가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음은 민현식(2000a,b), 김정은·이소영(2001), 남기심(2001)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13가)는 여러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 현상 자체를 언급한 것이고, 아래의 (13나-다)는 동일한 용어나 개념을 바라보는 관점이 선행 연구마다 차이가 있음을 보인 것이라는 측면에서 용어의 검토를 위해 선행 연구를 기술한 용례들에서도 그 차이를 보인다.

(13) 나. 즉 민현식(2002)와 성기철(2002)에서는 국어 문법과 한국어 문법의 체계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며, 다만 그 목적이 다르므로 문법 체계의 구성 방식이나 접근이 다소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 백봉자(1999)에서는 내국인용 문법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을 다르게 인식하지만, 민현식(2000a)에서는 내국인용과 외국인용이 서로 다른 문법 체계로 교육되는 것에 대해 교수자나 학습자 모두에게 혼란을 준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13가-다)와 같이 주요 용어의 혼용, 관점의 차이를 제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에 관한 필자의 입장을 밝히는 용례도 어렵지 않

21) ‘견해’와 아울러 ‘관점’, ‘입장’, ‘해석’의 차이로도 이해할 수 있겠다.

게 찾을 수 있다. (14가-나)의 예가 그러하다.

(14) 가. 이정희(2002: 41)에서 밝힌 바 있듯이 ‘전이(transfer)’의 개념이 오히려 ‘오류’를 더 잘 설명하고 있다는 데에 동의하며, 오류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에서 모국어의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전제 하에 오류 분석을 실시하였다.

나. [선행 연구의 개념 차별화됨] 텍스트와 담화의 정의는 여러 학자들마다 다른데 대표적으로 [개념 정의 사례1] Harris(1952)는 담화를 ‘연속으로 이어져 나오는 말(Sequential speech)’로 간주했고, [개념 정의 사례2] Widdowson(1979)은 담화를 ‘결합된 문장(combined sentence)의 사용’이라 하였으며, [개념 정의 사례3] Hoey(1983)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담화와 텍스트를 구별하면서 텍스트란 음소, 형태소, 통사 등과는 달리 비구조적 층위로서 문장 이상의 언어 단위인 반면, 담화와 텍스트 층위와 아울러 텍스트 외적 자질(extra-textual)인 상황과 이 상황 속에 있는 언어 사용자 및 언어 형태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 [필자의 종합 의견] 즉 담화란 언어 그 자체와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적, 시공간적 상황, 언어 수행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상호 관계와 지식 등 언어 외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²²⁾

(14가)의 사례가 한 문장 안에서 선행 연구에서 밝힌 개념을 언급하고 필자의 입장을 보인 것이라면 (14나)는 주요 개념을 종합한 필자만의 정의를 내리기 위해 3편의 대표적인 선행 연구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그 특징이 있다.

22) 이 글에서 제시한 용례의 대부분은 학술논문에서 선별한 것이지만, (14나)는 주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는 과정이 잘 드러나는 사례라고 판단하여 단행본에서 가져온 것이다.

3.6. 논거 제시 및 현상 해석

끝으로 선행 연구 기술의 기능의 여섯 번째로, ‘논거의 제시 및 현상에 대한 해석’의 기능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은 필자의 자의적인 해석이나 주장이 아닌 좀 더 객관성을 담보로 한 논의 전개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15) 가. 명제만을 제시하면 필자가 해당 명제를 사실이라고 믿는다는 점이 함축되지만 ‘-(으)ㄴ 수 있.’이 사용되면 언급된 명제 내용의 사실성이 하나의 가능성이 되면서 명제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열려 있게 된다. 염재상(1999:523)에서는 이러한 의미 특성을 반배제성(non-exclusion)이라 하였다.

나. 김정남(2003)에서는 ‘우리’의 이러한 용법을 두고 포함되는 사람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종족 대표 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김정남(2003)에 따르면 ‘우리’에는 포함되는 사람이 고정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아래 (14)의 ‘우리’는 전자에 속하고 (15)의 ‘우리’는 후자에 속한다.

(15가-나)는 선행 연구가 필자의 연구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된 것이다. 이 외에도 필자가 관찰한 현상이나 실험에서 얻은 결과를 해석할 때 선행 연구의 기술은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 때 얼마나 신뢰할 만한 근거를 뒷받침하여 필자가 자신의 논의 결과를 설명하느냐에 따라 해당 학술텍스트의 질과 수준이 달라진다.

4. 학문 목적 쓰기 지도에의 적용

앞서 3장에서는 실제 용례를 기반으로 선행 연구 기술의 주요 기능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본 장에서는 학문 목적 쓰기 지도에의 활용을 위하여 이 글에서 밝힌 선행 연구 기술의 기능을 <표 1>과 같이 정리하고 각 기능의 지도 시 유의점을 간략하게 논의하도록 한다.

<표 1> 선행 연구 기술의 주요 기능²³⁾

기능	세부 내용	구조 및 표현
주요 성과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 연구 나열 • 연구 성과의 가시화 	-로 A, B, C 등이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 강조 	그 가운데 A가 주목할 만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선행 연구의 양적, 질적 성과 부각 	-에 대한 연구가 A, B, C를 비롯하여 활발히 이루어졌다.
문제제기/ 연구의 필요성 부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연구의 반경이 넓은 것에서 좁은 순서로 제시 	-분야의 연구로 A,B,C가 있다. 그 가운데 A의 하위 영역으로 D,E,F에 대한 논의가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연구의 불충분함 발견 • 연구의 필요성 및 정당성 확인 	A에 대한 논의는 많지만 B에 대한 것은 부족했다. A를 -하기 위하여 B연구가 필요하다.
기존 성과 범주화/ 동향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 연구의 목록화 및 분류 • 시기별, 특징별, 주제별, 영역별, 관점별, 연구방법론별 분류 	-에 대한 연구는 A, B, C 순으로 이루어졌다. -에 대한 연구는 A, B, C로 분류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쟁점의 흐름 분석 	A에 대한 관심이 B로 옮겨졌다가 최근에는 C를 쟁점으로 한 연구가 증가하였다.
연구 대상 및 방법론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편 이상의 선행 연구를 비교, 대조, 특징 기술 	A와 B는 -측면에서 공통점(차별점)이 있다. A는 -인 반면 B는 -이다. A의 특징은 -이고 B는 -이다.

23) 텍스트 구조 학습을 쓰기 교육 이론에 접목하고자 시도한 염혜경(2010)에서는 설명문의 구조를 ‘구조 유형’과 ‘의미’, ‘그래픽 조직자’, ‘구조 형태’, ‘텍스트 구조 표지어’의 다섯 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 선행 연구의 기능을 이해시키고 및 효율적인 쓰기 지도를 함에 있어서 염혜경(2010)과 같은 시도는 매우 유의미한 것이라 본다. 이에 착안하여 본고에서는 ‘선행 연구 기술의 기능’을 ‘세부 내용’, ‘구조 및 표현’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 연구와 자신의 연구의 긴밀성, 차별성 설명 	A와 B가 -에 대한 것이라면 C는 -에 초점을 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대상, 범위, 방법 	A와 같이 B의 연구 대상/방법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주요 개념 검토 및 관점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학문 분야에서 주요 용어 언급 	-을 A는 B로 설명하고 C는 D라 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 연구의 개념을 따르지, 자신의 연구에서 새롭게 정의 내릴지를 설명 	-에 따라/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A를 B로 정의한다.
논거 제시 및 현상 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장에 대한 논거로 뒷받침 	-는 -를 -라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A는 B라 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및 실험 결과(현상)에 대한 해석/설명 	A의 관점에서 B는 C로 볼 수 있다. A는 B로 해석된다.

이 글에서는 선행 연구 기술의 첫 번째 기능으로, ‘주요 성과 확인’을 살폈다. ‘선행 연구 확인’이란 선행 연구 가운데 대표적인 몇몇 성과를 나열하거나 특정 논의를 언급하면서 그것의 학문적 기여도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해당 분야에서 필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의 가치를 드러낸다. 자칫 연구자의 이름이나 연구 내용만을 긴밀성 없이 나열한다면 ‘주요 성과 확인’의 기능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이 점에 유의하여 성과의 기계적인 나열이 아니라 이를 통해 연구 주체로서의 가치를 독자로 하여금 설득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다.

두 번째는 해당 학문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거나 성과가 미흡한 부분을 발견하여 필자만의 ‘문제 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기능이다. 주로 양적·질적 연구의 불충분함 지적, 기존 논의와 다른 시각에서의 연구의 필요성 제기 등의 방법이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필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정당성을 확보한다. 문제 제기의 어려운 점은 앞선 논의를 맹목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이유로 연구가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독자를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필자가 해당 연구 분야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연구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성과의 범주화 및 동향 파악’

의 과정을 거친다. 이 때 선행 연구 기술의 양과 질은 필자의 연구 주제 및 특성에 따라 상이하다. 또한 범주화 기준(시기별, 주제별, 관점별, 연구 방법론별, 연구 대상별)과 같은 선행 연구 기술의 방법도 차별화된다는 특징이 있다. ‘기존 성과의 범주화 및 동향 파악’은 글쓰기 윤리 위반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기능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필자의 연구 주제와 유사한 선행 연구의 성과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가져오는 행위가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리에 따라 동일한 재료라도 그 손질법이 다르듯이 기존 성과의 범주화 및 동향 파악의 방법 역시 필자의 연구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선행 연구 고찰’, ‘이론적 배경’, ‘기존 연구 검토’와 같은 내용을 그대로 옮겨 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선행 연구 기술의 네 번째 기능은, 필자가 자신의 연구 주제에 맞게 ‘무엇을’,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단지 연구 계획의 언급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행 연구와의 차별점 제시를 통해 ‘어떠한 이유로’, ‘무엇을’, ‘어떻게’ 연구하고자 하는지를 드러내는 것이며, 본고에서는 이것을 ‘연구 대상 및 방법론의 적용’ 기능으로 보았다. 분석 대상 및 범위 설정, 분석 자료의 처리 및 해석 방법, 도구 등 연구 방법 및 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학문적 가치는 물론 연구자의 역량과 연구의 실현 가능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섯 번째로, ‘주요 용어의 개념 검토 및 관점 분석’도 선행 연구 기술의 주요 기능이다. 학술텍스트에서 주요 개념 및 용어는 해당 연구의 주제, 방향, 필자의 관점을 압축하여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용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필자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지, 기존 논의의 입장과 어떤 부분에서 유사하고 차별화되는지를 밝혀야 한다는 측면에서 ‘주요 용어의 개념 검토 및 관점 분석’ 기능의 중요성이 크다. 특히 해당 학술텍스트에서 핵심이 되는 용어가 일관성 없이 다양한 표현으로 혼용

되지 않도록, 주된 용어의 개념 정의가 누락된 채로 글을 마무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여섯 번째로, ‘논거 제시 및 현상 해석’의 기능을 고찰하였다. 학술텍스트의 필자가 자신의 논의에서 도출한 결과에 대한 해석을 하거나 주장을 하고자 할 때 선행 연구가 그 뒷받침 근거가 된다. 이를테면 많은 시간과 품을 들여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으나 결과 해석에 있어서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측면에 강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논거 제시 및 현상 해석’의 기능은 자의성을 배제하고 신뢰성과 타당성을 담보한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5. 결론

이 글은 한국어 학술텍스트에서의 ‘선행 연구 기술’의 주요 기능을 밝혀 학문 목적 쓰기 지도에 활용 가능한 기초 자료로 삼는 데에 목적을 둔 것이다.

학문 목적 쓰기는 넓은 의미의 ‘자료 사용(Source use)’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선행 연구’는 학술텍스트의 필자가 글을 쓰는 시작점에서 도달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논의를 풍부하고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 활용하는 자료의 원천이다. 따라서 학문 목적 쓰기에 있어서는 선행 연구를 넓고 깊게 읽으면서도 필자가 자신의 글에 필요한 부분을 압축하여 가장 적절한 곳에 적당한 방법으로 가져오는 전략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선행 연구 기술 능력이나 전략의 개발은 그것의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전제되었을 때 가능해진다.

이 글은 2010년 이후 석박사 과정의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문 목적 쓰기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학문 목적 쓰기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선행 연구 기술’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했음에 주목한 것이다. 특히 기존의 논의들에서는 서론, 결론, 초록

등과 같이 논문의 구성 체제 별 특징을 중점적으로 고찰한 적은 있었지만 선행 연구가 학술텍스트의 모든 체제를 넘나들며 비공정적이고 유동적으로 적용된다는 사실은 부각된 바가 없다.

이에 이 글은 선행 연구 기술의 주요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선행 연구 기술의 주요 기능을 크게 ‘주요 성과 확인’, ‘문제 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부각’, ‘기존 성과의 범주화 및 동향 파악’, ‘연구 대상 및 방법론의 적용’, ‘주요 개념 검토 및 관점 분석’, ‘논거 제시 및 현상 해석’ 등의 여섯 가지로 살폈으며 각각의 특징은 학술텍스트의 실제 용례를 기반으로 고찰하였다.

이 글에서 살펴본 기능 이외에도 선행 연구 기술의 기능이 더욱 세밀하게 밝혀지고 각각의 용례도 풍부하게 목록화된다면, 학문 목적 쓰기 지도를 위해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인문학 분야의 학술텍스트에 머무르지 않고 후속 연구에서는 여러 분야의 학술텍스트에서 드러나는 선행 연구 기술의 기능을 함께 비교해보고, 학문 목적 쓰기에 있어서 계열별 특성이 어떻게 반영되어야 할 것인가를 밝히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선행 연구는 학술텍스트의 필자가 해당 분야의 앞선 연구자로부터 학문적 이론과 방법론을 이어받아 자신의 관점에서 새로이 발전시키고 그것을 다시 후속 연구자에게 전해 주는 ‘바통’과 같다. 그 바통을 ‘왜’, ‘언제’, ‘어떻게’ 전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우선 궁극적인 ‘바통의 기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글의 출발점이었음을 밝힌다.

<참고 문헌>

- 김성숙(2013).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숙달도 평가 연구 -보고서 쓰기 과제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24-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57쪽~80쪽.
- 김현진(2011). 학위논문 작성 교과목의 교수요목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외국인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22-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47쪽~73쪽.
- 김호정·정다운 외(2011).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학술적 글쓰기』.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 박나리(2012). 장르 기반 교수법(Genre-based teaching approach)에 근거한 학술논문 쓰기교육 방안 -학술논문 서론의 텍스트생산 목적진술담화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23-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55쪽~94쪽.
- 박나리(2013). 학문목적 한국어 쓰기 학습자를 위한 학술논문 각주 분석 -텍스트 기능과 기능별 언어표현을 중심으로-, <작문연구> 17, 한국작문학회. 227쪽~269쪽.
- 박보연(2011). 학위논문 국문초록 텍스트의 언어 특성, <교육연구> 19-1, 한남대학교 교육연구소.
- 박은선(2005). 한국어 학위논문 서론의 장르 분석적 연구: 한국어 모어화자와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 박지순(2006). 학술 논문 텍스트의 표지 분석,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 신명선(2006). 국어 학술텍스트에 드러난 헤지(Hedge) 표현에 대한 연구, 배달말 38, 배달말학회. 151쪽~180쪽.
- 신영주(2011). 한국어 화자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학위 논문 서론의 완화 표지 사용 양상 비교, <담화와 인지> 18-1, 한국담화인지학회. 63쪽~77쪽.
- 심호연(2013). 한국인과 유학생의 학위논문 결과-논의 부분에 나타난 완화표지 사용 양상 비교,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 안소진(2012). 학술논문 문형의 문법적 특징과 담화 기능에 대하여-국어국문학 분야의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어문연구> 7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87쪽~107쪽.
- 염혜경(2010). 텍스트 구조 학습을 통한 학문 목적 과정 중심 쓰기 교육 연구, <언어와 문화> 6-3,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183쪽~199쪽.
- 윤여옥(2012). 유학생의 한국어 학위논문 쓰기 교육을 위한 학위논문 연구방법 부분의 장르 분석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 이수연(2012). 유학생의 한국어 학위논문 쓰기 교육을 위한 학위논문 결과 부분의 장르 분석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 이윤진(2012). 외국인 유학생의 자료 사용의 윤리성에 대한 연구, 연세대 박사학

위 논문.

- 이윤진(2013). 외국인 유학생의 글쓰기 윤리 실천을 위한 학문 목적 쓰기 지도 방안-자료 사용(Source use)을 중심으로-, <작문연구> 17, 한국작문학회. 195쪽~225쪽.
- 이인영(2011). 외국인 대학생의 학술적 글쓰기에 나타난 오류 양상 연구, <현대 문학의 연구> 제44권, 한국문학연구학회. 493쪽~526쪽.
- 이인재(2010). 연구진실성과 연구윤리, 윤리교육연구 21, 269쪽~290쪽.
- 이정민·강현화(2009). 학문 목적 한국어(KAP) 학습자를 위한 보고서 담화표지 교육 연구 -작품 분석,비평하기 과제를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4,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347쪽~373쪽.
- 이주희(2012). 유학생의 한국어 학위논문 쓰기 교육을 위한 학위논문 결론 부분의 장르 분석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이준호(2012). 학술 텍스트에 나타난 한국어 헤지 표현 선정 연구, <이중언어학> 49, 이중언어학회. 269쪽~297쪽.
- 전경선(2012). 장르 중심 교수가 석사학위 논문 서론 쓰기에 미치는 효과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 정다운(2011). 한국학 전공 대학원생들을 위한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342쪽~352쪽.
- 조은영(2012). 유학생의 한국어 학위논문 쓰기 교육을 위한 학위논문 국문 초록 부분의 장르 분석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 최은지(2009). 사회적 구성주의에 기반한 학문 목적 한국어 작문 교육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 한송화(2010). 학문목적 한국어 교육과정 설계의 실제-대학 입학 전 한국어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21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25쪽~248쪽.
- Thompson, P.(2005). Points of focus and position: Intertextual reference in PhD theses. *Journal of English for Academic Purposes*, 4(4), 307-323.
- Bitchener, J.(2010). *Writing and applied linguistics thesis or dissertation:A guide to presenting empirical research*. New York, NY: Palgrave Macmillan.
- Swales, J.(1990). *Genre analysis: English in academic and research setting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부록: 용례의 출처>

- (1가, 4나) 문금현(2004), 한국어 유의어의 의미 변별과 교육 방안, 한국어교육15-3.
- (1나) 김현진(2011), 학위논문 작성 교과목의 교수요목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외국인 대학 원생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22-1.
- (1다, 9가) 김민애(2006), 한국어 학습자 오류의 분석 방법 고찰, 한국어교육17-2.
- (2가, 다, 3나, 12나) 방성원(2002), 한국어 교육용 문법 용어의 표준화 방안, 한국어교육13-1.
- (2나) 김중섭(2002), 한국어 학습자의 연결 어미 오류 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어교육13-2.
- (3가, 4가) 박병섭(2006), 다문화적 소수자 문제에서 한국의 특수성, 사회와 철학2.
- (3다) 박석준·김용현(2013), 한국어교육학에서의 학문 목적 한국어 연구 동향 분석, 언어와 문화9-1.
- (5가, 9나) 신명선(2006), 학문 목적의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어휘 교육의 내용 연구, 한국어 교육17-1.
- (5나) 전해영(2004), 한국어 공손표현의 의미, 의미학15.
- (6가) 정다운(2011), 한국어학 전공 대학원생들을 위한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 (6나) 박영순(2003), 한국어 교재의 개발 현황과 발전 방향, 한국어교육14-3.
- (7가) 최정순·윤지원(2012), 연구 동향 분석을 통해 본 학문 목적 한국어교육 연구의 실태와 제언, 어문연구74.
- (7나, 10가) 이미혜(2012), 한국어 쓰기 교육을 위한 텍스트 분석의 내용과 방법,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37.
- (8가) 강승혜(2003) 한국어교육의 학문적 정체성 정립을 위한 한국어교육 연구 동향 분석, 한국어교육14-1.
- (10나) 김성숙(2013),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숙달도 평가 연구 -보고서 쓰기 과제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24-2.
- (11가) 이정민·강현화(2009), 학문 목적 한국어(KAP) 학습자를 위한 보고서 담화표지 교육 연구 -작품 분석,비평하기 과제를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34.
- (11나) 최윤정(2012), 대학생 소논문 작성 지도 사례 연구 : 아이디어 생성 및 조직하기 단계를 중심으로, 어문연구40-3.
- (12가) 신현숙(2011), 의미망을 활용한 한국어 어휘 교육, 한국어문학연구 56.
- (13가) 한송화(2006), 외국어로서 한국어 문법에서의 새로운 문법 체계를 위하여, 한국어교육17-3.
- (13나) 박영민(2006), 다문화시대의 국어 교과서 단원 개발을 위한 연구, 청람어문교육34.
- (13다) 이미혜(2002), 한국어 문법 교육에서 ‘표현항목’ 설정에 대한 연구, 한국어교육13-2.
- (14가) 이해영(2004), 학문 목적 한국어 교과과정 설계 연구, 한국어교육15-1
- (14나) 이성범(2012), 화용론 연구의 거시적 관점, 소통.
- (15가,나) 안소진(2012), 학술논문 문형의 문법적 특징과 담화 기능에 대하여-국어국문학 분야의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어문연구73.

272 이중언어학 제54호(2014)

이윤진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플러스 사업단

120-749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전화번호: 02-2123-3908

전자우편: smile-yunjin@hanmail.net

접수일자: 2013년 12월 20일

심사(수정)일자: 2014년 1월 22일

게재확정: 2014년 2월 22일